

경기 둔화·정치리스크 ‘겹악재’… 코스피, 박스권 지속될 듯

지난주 코스피, 전주비 27.75포인트 ↓ 투자자예탁금, 신용공여잔고도 줄어 外人, 계엄사태 이후 1.3조 순매도 美 소비자물가 지표 변수 가능성



코스피가 전 거래일(2441.85)보다 13.69포인트(0.56%) 하락한 2428.16에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70.94)보다 9.61포인트(1.43%) 내린 661.33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 둔화 조짐에다가 계엄 파동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대내외 악재로 내년 초까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7.75포인트(1.13%) 하락한 2428.16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661.33으로 16.86포인트(2.49%) 떨어졌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순매수를 이어가던 개인은 지난 6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7500억원 이상 매도했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감소세다. 투자자 예탁금은 3일 기준 49조8987억원으로 8월 이후 10조원 넘게 줄었다. 빚투(빚내서 투자)의 지표가 되는 신용공여잔고는 같은 기간 16조5658억원으로 연중 최고 수준이었던

20조2477억원(6월24일)에 비하면 18% 가량 감소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하반기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17조원을 팔아치웠다. 특히 계엄사태 당일인 지난 4일부터 3거래일 동안에는 1조335억원을 순매도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 리스크가 해소돼야 수급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국회 탄핵 의결부터 현재 결정까지 3개월간의 경험치에 미루어 볼 때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하

는 트리플 약세 등은 크지 않지만 반도체 등 펀더멘탈(기초체력) 우려, 트럼프 발 불확실성, 탄핵 등으로 인해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약세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CPI) 지표가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11일 예정된 CPI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며, 단기적 증시 반등의 재료가 될 수 있어서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보다 금리 부담 완화에 반응할 수 있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으나 연속성 있는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만큼 방어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계엄 여파에 동력 잃은 ‘밸류업’… 금융·증권株, 外人 이탈 심화

KRX 은행·증권, 각 8.31%·6.00% ↓ 간만에 유입된 外人, 계엄에 재이탈 정책지원 등 감안하면 과도 하락 평가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해 동력을 잃고 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기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기대감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증권주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KRX 은행’ 지수와 ‘KRX 증권’ 지수는 각각 8.31%, 6.00%씩 하락했

다. 개별 종목별로는 KB금융은 15.71%, 신한지주는 9.04%, 하나금융지주는 7.8% 씩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4일 간만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탈하며 코스피는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밸류 다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들은 최근 14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만 약 19조원을 팔아치웠다. 계엄령 사태로 어지러웠던 4일부터 6일까지는 코스피에서만 약 1조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지난 4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금융주였다.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삼성전자(748억원)를 제외하고는 신한지주(653억원), 하나금융지주(479억원), KB금융(471억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난 것으로 보여진다. 4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6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국내 증시 투자 매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은행주는 밸류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은행의 적극적 주주환원

제고 실천에 기인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시장 평균 수익률 상회) 중이었다”며 “다만 최근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주로 인식되며 상승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적 지원, 2025년 이후 총주주환원 강화 등을 감안하면 최근 은행주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은행주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연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밸류업 정책은 국내 증시 상승을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꼽히기도 했다. 상반기에는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하반기에

와서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사실상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기준 코스피는 연초보다 8.93% 떨어졌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의 정책 추진 동력이 돼야 할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현 정부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밸류업 정책 추진 주체이지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아왔기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꾸준한 이익 창출에 정치 테마주 등극까지… 시장 이목 ‘집중’

metro 관심종목 카카오페이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 전망 尹 정부와 마찰… 탄핵정국에 오름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본업인 결제·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꾸준한 이익 개선 기대와 해외주식 거래대금 확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회복에 힘입어,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 중심의 영업이익 회복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며 카카오페이 관련주 전반의 주가 상승 및 변동성 확대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빠르면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을 맞이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결제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부문이 견조한 이익 창출을 지속하는 가

운데, 증권 사업 부문에서는 해외주식 거래 확대와 부동산 PF 신규 딜 증가, 비용 통제를 통한 적자 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가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6736억원, 영업이익 576억원을 올릴 것”이며 “카카오페이증권의 적자폭도 200억원가량 줄어든 83억원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카카오페이 계열사 주가가 윤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탄핵사태 등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킴즈, 카카오펙 등 주요 계열사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며, 탄핵정국에 따른 테마주 성격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이 과거 카카오텍시 시장 지배력을 두고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

성을 언급하며 카카오페이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정권 불안정성이 카카오페이 관련주에 반사적 기대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 주가 단기 변동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 6일,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0.56%(13.69p) 내리는 와중에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6.12%(1750원) 상승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의 본업은 꾸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 카카오페이의 적정 순자산가치(NAV)는 약 4조5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엔 카카오페이의 실적 개선이 뚜렷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3만1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결제·금융서비스 강화에 따른 이익 창출력 제고, 증권 부문 부진 완화,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따른 변동성까지 삼각요인이 맞물리며 카카오페이는 당분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교보증권 신년맞이 3종 이벤트

교보증권은 신년맞이 해외주식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 3종을 오는 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수료 이벤트’는 해외주식을 최초로 거래하거나 6개월 이상 휴면고객 대상으로 미국주식 온라인 수수료 0.017%를 적용한다.

‘담보대출 이벤트’는 최근 3개월간 담보대출이 없는 고객에게 180일 동안 연 3.9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선물 이벤트’는 해외주식 매매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투자상품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의 현금 리워드를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미국주식을 1억원 이상 거래한 신규 및 휴면고객 전원에게 금융투자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기존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 쿠폰을 증정한다.

/신하은 기자